

# 허가운 “아이돌 출신 서현진 선배처럼 성장하고파요”

### 영화 ‘서치 아웃’ 해커 누리 역할...오는 15일 개봉 “‘마약왕’ 찍을 때 송강호 선배님 칭찬, 가장 보람”

걸그룹 포미닛 출신 배우 허가운이 역시 자신처럼 아이돌그룹 출신인 배우 서현진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허가운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영화 ‘서치 아웃’ (감독 박정) 관련 인터뷰에서 존경하는 아이돌 출신 배우로 서현진을 꼽으며 “노래도 잘하셨다. 나에게 가끔 물어보시는 질문이 노래를 잘하는데 ‘왜 연기를 했어요?’ 하는데, 서현진 선배님이 노래도 잘하시고 드라마 OST도 부르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도 나중에 그렇게 잘 성장하면 OST로 노래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 보컬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연기 잘하네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게 비슷하다. 서현진 선배님처럼 되면 감사하다”고 설명했다.

허가운이 도전하고 싶은 배역은 자신의 기존 이미지와 반전되는 캐릭터다.

그는 “여태까지 역할을 보니 똑부러져서 내 할말을 다 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 내가 그런 이미지인가 보다. 반대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며 “순수하고, 할 말 다 못하고 그런.. 순수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소심한 느낌의 그것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적인 느낌,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지금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기 생활을 시작한 후 가장 보람이 있었던 칭찬은 송강호로부터 들은 것이었다면서 “‘마약왕’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신은 별로 안 나왔는데 송강호 선배님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칭찬도 아낌없이 해주시고 내 대사를 품소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마음대로 해’ 하시면서 ‘잘 하네’ 칭찬도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눈앞에 송강호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 감사했다. 한두신밖에 없는데 다 챙겨주시더라. ‘중순이 이리’와 하면서 같이 해주시고, 그때 좋았었다”고 회상했다.

허가운은 ‘마약왕’에서 중순 역할을 맡아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줬다. 그는 개봉 당시 영화 속 인물이 자신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영화 오디션을 볼 때 우민호 감독 역시 그가 아이돌 가수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허가운은 “‘마약왕’은 오디션부터 내 나시대 역할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경향이 없었으니 오디션을 본 것이다. 감독님이 포미닛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 신선하다면서 함께 해보고 싶다고 해서 출연하게 됐다. 저는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영화를 본 이들은 “허가운을 닮은 배우가 나온다”는 반응을 보였다. 허가운은 이에 대해 “분장을 하고 연기했다. 예쁜 역할이 아니어서 더 저인지 몰랐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허가운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더 기분이 좋다고 했다. 그는 “오디션 갔을 때 포미닛으로 안 봐주셔도 감사하다. 한 명의 신인

배우로서 새롭게 봐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게 좋다”고 했다.

포미닛 멤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락하고 지낸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다. 가족들과는 만날 연락하지 않지 않나. 무슨 일 있거나 하면 연락하고, 사진 보면 연락하고는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로 전향한 권소현, 남지현 등과 연기 얘기를 하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더 안 한다. 그때는 팀이었기 때문에 같이 잘 돼야 하는 거여서 덜 예민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고쳐야 할 것 같아’ 했는데 이제는 개개인의 직업이 됐다. 감히 내가 멤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좋게 봤는데 남은 안 좋게 봤다고 괜히 말했다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오히려 포미닛때보다 말을 더 조심하 한다. 웬만하면 일 얘기 안 하고, 사적인 얘기를 한다. 진짜 가족처럼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허가운은 말은 하지 않지만, 멤버들의 작품은 꾸준히 챙겨본다고 했다. 그는 “소현이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지현 언니 드라마도 보고, 그렇게 한다”면서 “어렸을 때 연습생 시절부터 연기를 했었다. 가끔 멤버들을 보면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집 TV에서 연기하는 걸 보는 게 새롭다. 항상 같이 나왔는데 혼자 뭔가 하는 게 새롭고, 빨리 분발해야겠다. 생각도 든다”면서 연기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허가운은 ‘서치 아웃’에서 한번 손대 건 끝까지 파헤치는 해커 누리 역할을 맡았다.

‘서치 아웃’은 경찰 준비생 성민과 취



준생 준혁이 같은 고시원에 살던 소녀의 자살 사건에 의혹을 품고 조사를 시작하고, 흥신소 해커 누리가 여기에 합류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전 세계 20여

개국의 청소년들을 연쇄 자살로 이끈 힌긴수염고개 게임을 모티브로 했다. 오는 15일 개봉한다.

강아라 기자

## 방탄소년단, 음반 총 판매량 2032만장...한국 가요 역사상 처음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로 는 처음으로 앨범 누적 판매량 2032만장을 기록하며 또 한 번 기요계에 새 역사를 썼다.

9일 대한민국 공인 음악차트 가온차트가 발표한 2020년 3월 앨범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2013년 데뷔 앨범 ‘투 쿨 포 스쿨 (2 COOL 4 SKOOL)’을 시작으로 지난 2월 발매한 ‘맵 오브 더 솔: 7 (MAP OF THE SOUL : 7)’까지 총 14개 앨범을 통해 2032만9305장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 중 ‘윙스 (WINGS)’ 113만장, ‘윙스 외전: 유 네버 워크 얼론 (WINGS 외전: YOU NEVER WALK ALONE)’ 102만장, ‘러브 유어셀프 승 허 (LOVE YOURSELF 承 Her)’ 222만장,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LOVE YOURSELF 轉

Tear)’ 221만장,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LOVE YOURSELF 結 Answer)’ 259만장,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MAP OF THE SOUL : PERSONA)’ 377만장, ‘맵 오브 더 솔: 7 (MAP OF THE SOUL : 7)’ 417만장이 각각 판매되며 7개 앨범 연속 밀리언 셀러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미 지난 2월 가온 앨범 차트에서 음반 누적 판매량 2000만 장을 돌파했다. 2018년 11월 앨범 차트에서 1000만 장을 돌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1년3개월 만에 또다시 1000만 장 이상을 판매하는 저력을 보였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요 역사상 최초로 앨범 누적 판매량 2000만 장을 넘기며 ‘최대 음반 판매’ 기록을 보유한 가수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솔: 7’은 3월7일 자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에 진입한 이후 최신 차트에서 25위를 기록하며 6주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컴백’ 홍진영, 신곡 제작기 조영수·홍선영 향한 애정

홍진영이 현란한 입담으로 ‘가요광장’을 꽂 채웠다.

9일 오후 방송된 KBS 쿨FM ‘정은지의 가요광장’에는 지난 1일 새 싱글 ‘버스 플라워 (Birth flower)’를 발매하고 1년 여 만에 컴백한 가수 홍진영이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DJ 정은지는 홍진영의 신곡 ‘사랑은 꽃잎처럼’의 뮤직비디오를 봤다며 “뮤직비디오가 너무 예쁘다. 대형 기획사에서 제작한 것 부럽지 않다”라고 칭찬을 했다. 이에 홍진영은 “돈 바를수록 잘 나온다. 때깔이 다르더라”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한 청취자는 ‘사랑은 꽃잎처럼’의 안무 역시 너무 좋으며 벌써부터 어머니 팬들 사이에서 반응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홍진영은 “안무 연습을 할 때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홍진영은 ‘사랑은 꽃잎처럼’ 제작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주기도 했다. 그는 “처음에 ‘사랑은 꽃잎처럼’을 들었는데 살짝 아쉬운 거다. 그래서 영수 오빠에게 후렴구를 바꿔보면 어떨까 했는데, ‘그러면 다 바꾸자는 건데’라며 원하는 장르를 묻더라. 탕고를 말했더니 작업을 바로 해서 3시간 만에 나왔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홍진영은 작곡가 조영수와 ‘사랑의 배터리’부터 ‘오늘 밤에’까지 함께하며 11년 동안 작업했다고 한 뒤 “영수 오빠와는 호흡이 잘 맞는다. 내가 마이크 잡을 힘이 달릴 때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진영은 함께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 중인 언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DJ 정은지는 홍진영에게 언니와 함께 ‘미우새’를 촬영하며 싸우진 않는지 물었고, 홍진영은 “가끔 카메라를 망각한다. 찌므로 화가날 때도 있다.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욱해본 적도 있다”라고 해 청취자들을 웃게 했다. 그러나 이어 언니를 향한 애정어린 영상 편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 ‘부부의 세계’로 인기몰이 중인 한소희

### 비주얼+매력 ‘100점’...차세대 스타

#### 대선배들 사이 탄탄한 연기력

배우 한소희가 화려한 외모만큼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JTBC 금드드라마 ‘부부의 세계’ (극본 주현/연출 모안일)에서 세련된 비주얼에, 독보적인 매력을 소유한 여다경 역을 맡아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배우 한소희가 대선배들에게 밀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주목을 받으며 차세대 스타로 발돋움했다.

‘부부의 세계’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의 연이 배신으로 끊어지면서 펼쳐지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섬세하고 힘 있게 풀어 내 매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화제성과, 인기를 동시에 견인 중이다. 극 중 한소희는 세련된 외모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다경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선배들 사이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탄탄한 연기력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극의 몰입도를 더하고 있다.

또 분노를 유발하는 면모부터 아이를 임신한 20대의 여성의 불안하고 어린 면모까지 감정의 폭이 넓고 입체적인 여다경의 캐릭터를 디테일한 표현력과 상황에 따라 유려하게 변하는 대사 톤과 눈빛으로 그려낸다.

‘부부의 세계’의 인기와 함께 한소희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소희의 스타일, 사진, 연기 영상 등이 올라와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며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한소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